

◆ 북미

- 2007년 미국 손해보험 산업 지표동향
- 미국 루이지애나 주, 카트리나 관련 보험금 청구에 면책 판결
- S&P, 보험료 하락으로 인한 기업성 보험사 수익성 악화 경고

◆ 유럽

- MIB(Motor Insurance Bureau) 주요 범죄사업 지원
- 모노라인(monolines) 채권보증사 MBIA의 신용등급 AA로 하향조정
- Columbus Direct, 주택보험 및 자동차보험 시장으로 판매 확대

◆ 일본

- 니혼코아손보, 고객 리스크 무료 분석서비스 개발
- 타이요생명, 컨설팅 서비스 지원 단말기 시스템 개발
- 니혼생명, 저 연령층 대상의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 개설

◆ 중국

- 중국 보감위, 위법행위자(기관) 리스트 대외 공개
- 유족분쟁 부른 수익자 미지정 보험금 90만 위안
- 중국 농촌보험, 보험회사에 새로운 기회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2007년 미국 손해보험 산업 지표동향

- 미국 보험기관인 ISO(The Insurance Services Office), III(th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PCI(the Property and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는 공동으로 2007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지표를 발표함.
- 미국 손해보험산업 순이익은 2007년 6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6년 658억 달러에 비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 손해보험산업 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3.6% 감소한 40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함.
- 2007년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계약자 잉여금당 순이익률은 2006년 14.4%에 비해 2.1%p 하락한 12.3%를 기록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보험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8.9% 감소한 190억 달러를 기록함.
- 또한 합산비율은 2006년 92.4%에서 2007년 95.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2006년 92.4%에서 2007년 94.6%로 증가함.
- ISO와 PCI에 따르면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합산비율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힘.
- 그러나 ISO의 부회장인 Michael R. Murray는 합산비율이 양호하긴 하지만 손해보험산업이 Fortune500 기업의 장기 평균 수익률인 13.9%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산비율을 다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Canadian Underwriter, 4/9)

□ 미국 루이지애나 주, 카트리나 관련 보험금 청구에 면책 판결

- 미국 루이지애나주 고등법원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의무를 면하는 판결을 내림.
 -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된 제방의 붕괴로 홍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카트리나로 인한 홍수피해는 보험상품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힘.
 - 인재로 인한 홍수피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자연재해로서의 홍수피해만이 면책대상인데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피해는 인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임.
- 작년에도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The 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항소법원은 홍수가 제방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미국의 손해보험 상품에 일반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면책조항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미육군 공병단(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이 뉴 올리언즈시 주변의 제방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제방이 무너지면서 도시의 80% 이상이 수 주간 침수된 것으로 평가함.
-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보험사와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John Houghtaling 변호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임.
 - 그는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는 분명 인재에 해당하며 이전까지 인재로 인한 피해가 수해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루이지애나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고 항변함.

(Reuters, 4/8)

□ S&P, 보험료 하락으로 인한 기업성 보험사 수익성 악화 경고

- S&P는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낮은 보험료 수준이 2008년 하반기에는 기업성(commercial lines) 손해보험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S&P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속도로 보험료가 인하된다면 개별 기업성 손해보험사의 신용등급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성 보험산업 전체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주요 기업성 보험료는 2005년부터 완만히 인하되어 왔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히 인하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는 200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S&P는 밝힘.
 - 보험료 인하의 부정적인 영향은 2008, 2009년 중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개별보험사들과 산업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S&P는 지적함.
 - 그러나 얼마나 빨리 신용등급 전망을 변경할 것인지는 보험사마다 다르며 이는 시장상황, 재무건전성, 시장경쟁력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할 것임.
- 보험료는 많은 보험 종목에서 인하되고 있으나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보험료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고 있음.
 - S&P는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전사적 리스크 관리기법 향상으로 보험료 인하 문제가 큰 충격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험사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개별 보험사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타겟마켓,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달려있다고 강조함.

(Insurance Journal, 4/9)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MIB(Motor Insurance Bureau)* 주요 범죄사업 지원

- 지난 주 경찰들은 MIIC(Motor Insurers' Information Centre)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주요 범죄사업으로 900대 이상의 자동차를 검문·탐색하였으며, 58대를 구속시키는 등 자동차 범죄와 관련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음.
-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인 ANPR 기술(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포착해 이를 저장된 자료와 비교·판독)을 이용하여 감시카메라와 연계해 도난무보험 차량이나 복재번호판 단속 등으로 58대 차량 구속, 156의 차량이 붙잡혔음.

* MIB는 1946년 비보험차량 및 비추적차량과 같은 비도덕적인 차량운전자에 의한 희생자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웨일스의 등록사무소는 412,787개로 밀톤 케인즈에 위치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MIB의 지원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영국의 3천5백만 이상의 보험가입차량의 상세내역을 보유함에 따라 경찰들이 필요시에 이를 항상 유용하게 활용하게 된 것임.
- MIB는 실시간 밤낮으로 경찰에 의해 접속되고 비보험 차량의 운전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1대 차량의 조회시간은 경찰 전원 3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2007년에는 150,000대의 비보험 차량을 구속하였으며, 이 중 총돌사고로 사망한 수도 40%에 달하고 있음.
- 최근 MIB는 이와 같은 정보제공으로 인해 범행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맞서기 위한 경찰들과의 파트너십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이들의 이런 활동에 있어서 경찰들은 일부 구속된 자동차에서 무기를 포함한 총탄, class A drugs heroin과 같은 마약 공급망도 발견하게 되었음.

(Insurance News Times, 4/8)

□ 모노라인(monolines*) 채권보증사 MBIA의 신용등급 AA로 하향조정

-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 Ratings)사가 MBIA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비율에 따른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두 단계나 하향 조정하였으며, MBIA의 장기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했음.

* 모노라인 : 채권 발행자가 부도를 내더라도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기관으로 MBIA나 ABK(암박파이낸셜)처럼 자본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채권보증업체들을 말함.

- 세계 최대 채권보증회사인 MBIA는 금융보증시장의 보다 나은 탄력성을 확보하기까지 신용측면의 개선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임.
- 피치사의 이런 신용등급에 관한 입장은 MBIA가 AAA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34-38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나, 2007년말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예상액이 16억 달러로 기준에 미달하여 AA로 하향 조정함.
- 피치사는 MBIA가 올해 초 조달한 26억 달러의 자본을 포함시켜도 이처럼 자본규모가 미달된다고 설명하였음.
- 피치는 "MBIA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담보부증권(CDO)*에서 49억 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MBIA가 최고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38억 달러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CDOs_부채담보부채권 : 1차 주택부채상품(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연체와 부도 등을 기초로 새롭게 만든 상품을 CDOs(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라고 하며, 일반 대출과 회사채,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을 한 데 묶어 만든 유동화 채권으로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IB)들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들을 섞어 새로운 신용등급을 가진 CDO로 만들어 팔아왔음.

- MBIA는 올해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손실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놓이면서 채권 발행과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사모펀드(PEF) 워버그 핀커스로부터 26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분기 배당금도 사내 유보했으며, 채권 보증업과 지방채 보증업을 5년 이내 분리하기도 함.
- 이에 따라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는 지난 2월 MBIA의 등급을 'AAA'로 유지했으나 피치는 MBIA가 최고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판단을 고수하며 '하향 관찰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음.

(Yahoo Finance, 4/4 & Insurance Times 4/7)

□ Columbus Direct, 주택보험 및 자동차보험 시장으로 판매 확대

- 여행자보험 전문회사인 **Columbus Direct***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조언자의 입장에서 주택보험 및 자동차보험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 **Columbus**는 온라인가격 비교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국의 20여개 선두보험회사의 상품들을 전화를 이용한 직접적인 판매방식으로 개인별 요구항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Columbus Direct는 1988년 설립된 여행자보험 전문회사로서 직접판매방식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의 최대 60%까지를 고객이 절약할 수 있으며, 고객을 위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구매혼란을 최소화하는(hassle-free)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회사임. 이는 FSA에 의해 인허가 및 규제를 받으며, 언더라이터들은 여행자보험 전문가임과 동시에 Financial Ombudsman Scheme(FOS)의 멤버이기도 함.*

- **Columbus** 이사인 **David Shortland**에 따르면,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는 수많은 보험약관을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은 보험구매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함.
- 따라서 보험 상품을 구매 강요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높은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함.
- **Columbus**의 경우에는 1988년 출범 이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고객 정보를 통해 그들이 어떤 보험상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음.
- **Columbus**는 3가지 기본 원칙(고객이 원하는 보험약관을 찾아주는 것,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들이 원하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 그들이 보장받기를 원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바탕으로 신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고자 함.
- 이런 판매활동은 고객이 보다 적합하고 나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결코 보험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됨.

(Insurance News Times, 4/8)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니혼코아손보, 고객 리스크 무료 분석서비스 개발

- 니혼코아(日本興亜)손해보험은 8일 사고나 질병 리스크를 분석해 필요한 보상액을 산출하는 리스크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으며 타 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계약자는 리스크를 기재한 시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상 누락이나 중복을 막을 수 있음.
- 니혼코아손보는 상세한 어드바이스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동시에 고객의 신뢰를 높여 보험판매로 연결하고자 서비스를 개발함.
 - 손해보험상품은 상품내용이 복잡하여 신규 계약 시 내용을 알기 힘들고 필요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리스크와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새로운 서비스는 전국 3만 3000개 대리점에서 교통사고나 질병 등 일상적인 리스크와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비교해 주며 타 회사의 계약자에 대해서도 약관 등을 지참하면 무료 진단해 줌.
 - 동사의 담당 임원은 이 서비스의 목적이 보험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자신의 위험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뢰를 얻으면 결과적으로 계약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함.

(FujiSankei Business I, 4/9)

□ 타이요생명, 컨설팅 서비스 지원 단말기 시스템 개발

- T&D보험그룹의 타이요(太陽)생명보험은 영업직원의 컨설팅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미래의 재무예측이나 필요한 보장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업지원 단말기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함.
 - 이 단말기 시스템은 약 8000명의 영업직원이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가족구성 및 소득에 따라 필요한 보장금액을 예측하거나 생활습관 및 질병 리스크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음.
 - 또한 방문영업에서부터 계약까지의 모든 계약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주얼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목적임.
- 「T-SMAP」으로 부르는 이 시스템은 ①고객방문 지원, ②보장내용의 확인, ③가계 진단, ④생활습관 체크 ⑤선진 의료 소개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음.
 - 고객방문 지원은 영업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의 계약내용이나 가족구성, 지금까지의 방문 이력 등을 열람 할 수 있어 「방문의 종료 상태」, 「방문 예정」, 「부재」,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다」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됨.
 - 보장내용의 확인 기능은 계약내용의 보장 충실도를 체크하며, 가계 진단은 가족구성이나 소득, 주택 보유 상태 등을 입력하면 필요한 보장금액이나 향후 예상자산 등이 표시됨.
 - 또한, 고객의 생활 습관을 입력하면, 생활 습관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전문가가 선진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 동영상으로 설명하며,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요한 보장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 타이요생명은 저축성상품에서 사망보장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상품으로 상품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고 있으며 보장성상품의 판매에는 라이프플랜 분석 등 컨설팅 능력이 요구되므로 이 시스템을 개발함.

(FujiSankei Business I, 4/11)

□ 니혼생명, 저 연령층 대상의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 개설

- 니혼(日本)생명보험은 7일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함.
 - 이 웹 사이트는 유명 인기가수를 이미지 캐릭터로 채택하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모하는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콘텐츠를 확충함.
 - 니혼생명은 동 사이트를 통해 낮아지고 있는 젊은 층의 생명보험 인지도를 향상시켜 보험상품의 판매로 연결할 계획임.
 - 신설한 웹 사이트는 「YOU MAY DREAM」([http : //you - may.jp/](http://you-may.jp/))이며 보험상품의 구조를 알기 쉽게 해설하는 코너와 이벤트 정보, 채용 정보 등의 콘텐츠를 배치하였으나 직접적인 보험판매는 실시하지 않음.
 - 주요 타겟은 20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에서 처음 사회에 진출한 직장인들임.
- 주요 콘텐츠는 자신의 꿈에 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모집하는 투고 기획 코너이며 투고 작품은 웹 사이트상에 게재하여 사이트 이용자에 의한 투표로 우수작품을 결정함.
 -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동 작품으로 표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니혼생명이 지원함.
- 10일부터 시작하는 동 사이트에 관한 TV CM은 유명 인기가수를 기용할 예정이며, 동 회사가 이미지 캐릭터로 연예인을 기용하는 것은 3년만으로 젊은 층에 대한 친밀도, 인기도, 밝은 이미지 등을 위해 선택했다고 밝힘.
- 니혼생명은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보험판매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을 검토하는 넷 비즈니스 추진 그룹을 3월 25 일자로 신설하였음.
 - 이번 젊은 층을 겨냥한 웹 사이트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

(FujiSankei Business I, 4/8)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보감위, 위법행위자(기관) 리스트 대외 공개

- 보감위는 보험업 종사자 혹은 기관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감독기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명단을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중국 보감위 주석 우딩푸(吳定富)는 산시성(陝西省)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보험업 지역별 발전 조사연구’ 실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험업 종사자 및 종사기구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우딩푸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인원 및 기관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며, 필요시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및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 대외에 공개하여 사회적인 감시망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처음으로 위법행위자 블랙리스트의 대외공개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 이에 따라 보감위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며, 보험회사 고급관리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명단을 공개,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기구의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위법 경력이 있는 자가 타지에서 동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임.
- 보감위는 특히 보험중개기구에 대해 일단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시는 보험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영구 제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 진보, 4/7)

□ 유족분쟁 부른 수익자 미지정 보험금 90만 위안

- 보험가입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산으로 간주되어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규정돼 있으며, 법정상속인은 부모, 배우자, 자녀를 일컬음.
 - 지난4월 9일 화안보험공사 충칭(重慶)분공사 관계자는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족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급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을 소개했으며, 이 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60% 이상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함.
- 금년1월 23일, 탄(潭)씨는 화안보험공사에 사망보험금 60만 위안짜리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탄씨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반죽에 빠져 숨을 거두고 말았으나, 탄씨가 가입한 보험은 수익자 미지정으로 인해 사망보험금 60만 위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음.
 - 법정상속인은 부모와 자녀 2명, 그리고 피보험자의 처인 천(陳)씨 등 모두 5명이며, 탄씨의 부모는 5명이 균등 분할하여 1인당 12만 위안씩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부인 천(陳)씨는 자녀양육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균등 분할에 반대, 결국 사망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가족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60만 위안을 별도계정에 보관하도록 했다고 전함.
- 이에 화안보험공사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수령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험계약 시 수익자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음.

(중경만보, 4/10)

□ 중국 농촌보험, 보험회사에 새로운 기회

-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집권 2기 들어 ‘조화로운 사회’를 강조하면서, 그 동안 발전에 소외돼 왔던 농촌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부양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중국 중앙정부가 제1호 문건을 통해 농촌경제 발전에 보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위 문건을 통해 중국정부는 농촌, 농민, 농업 등 이른바 ‘삼농’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농촌보험이 사상 유래 없는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해보험 회사들이 농업보험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인민보험그룹 총재 우옌(吳焰)은, “중국인민보험그룹은 정부의 농촌보험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해 약 2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농촌지역에 지점망을 개설했으며, 1년 동안 정책성 업무 위주로 농촌보험의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해 왔다.”고 말하면서, 지난 해 농업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30억 위안으로 직전 8년 동안의 농업보험 수입보험료 합계보다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하였음.
- 또 텐안보험(天安保險)은 농업보험을 2008년 중점업무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지난 해 본부 산하에 서부 신상품 실험기지를 설립하고 충칭(重慶)시와 협력하여 잠농보험 시행에 들어갔음.
- 이 보험상품은 보험료 중 정부 재정에서 70% 지원을 받고 누애고치 양식업체가 30%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되며, 정책성 잠농기구 전용 보험상품임.
- 금년에는 농촌의료보험 시범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산하 의료기구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위험을 보장하는 ‘의료책임보험’의 판매에 적극 나설 계획임.

(인민일보, 4/11)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3.28(금)	08.4.4(금)	08.4.11(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17	5.14	4.94	-0.20
	美 10년국채	4.03	3.47	3.48	3.47	-0.01
	英 10년국채	4.51	4.41	4.45	4.61	0.16
	日 10년국채	1.51	1.28	1.34	1.38	0.04
주가	韓 KOSPI	1,897.13	1,701.83	1,766.49	1,779.71	0.75%
	韓 KOSDAQ	704.23	636.67	648.49	651.87	0.52%
	美 DJIA	13,264.82	1,2216.4	12,609.42	12,325.42	-2.25%
	美 Nasdaq	2,652.28	2,261.18	2,370.98	2,290.24	-3.41%
	英 FTSE	6,456.90	5,692.90	5,947.10	5,895.50	-0.87%
	獨 DAX	8,067.32	6,561.76	6,763.39	6,603.57	-2.36%
	佛 CAC40	5,614.08	4,695.92	4,900.88	4,797.93	-2.10%
	日 Nikkei225	15,307.78	12,820.47	13,293.22	13,323.73	0.23%
	中 상해종합	5,261.56	3,580.15	3,446.24*	3,492.89	1.35%
	대만 가권	8,506.28	8,623.48	8,596.34	8,909.58	3.64%
	홍콩항생	27,812.65	23,285.95	24,264.63*	24,667.79	1.66%
환율	원/달러	938.20	993.00	974.10	975.40	1.30
	원/100엔	833.33	997.59	951.67	958.30	6.63
	엔/달러	112.58	99.54	101.68	101.19	-0.49
	달러/유로	1.4722	1.5809	1.5732	1.5818	0.0086
	위안/달러	7.3041	7.0109	7.0175	6.9920	-0.0255

주 : *는 4/3 기준임.